

和紙

歴史

加賀では、平安時代から和紙が漉[す]かれていたと言われているが、盛んになったのは江戸時代以降のことである。

文禄元年(1592)以来、金沢市の山間地に位置する二俣[ふたまた]は献上紙漉き場として加賀藩の庇護[ひご]を受け、加賀奉書[ほうしょ]など高級な公用紙が漉かれていた。また、天明4年(1784)には、敦賀から製法を学び、川北町で雁皮[がんび]紙が漉き始められ、西陣織の金糸、銀糸の芯紙として使用された。現在は、金箔の箔打ち紙に使用されている。さらに、輪島市仁行[にぎょう]でも、古くから付近のコウゾを使って紙漉きが行われている。

特色

加賀二俣和紙は、すべて国産の原料を使用しており、各漉き場では自家採取と国内の原料で生産している。現在は、箔打ち紙や、工芸、表具用の紙を漉いている。

また、川北町の和紙は加賀雁皮紙と呼ばれており、雁皮紙は別名斐紙[ひし](美しい紙)と呼ばれ、和紙の王様と呼ばれている。ただ、原料のガンピが栽培困難で、自生したものを採集して生産するだけとなっている。

輪島市の和紙は能登仁行和紙と言われ、ササやスギ皮、海藻などを漉き込んだ能登唯一の創作和紙である。



일본전통종이

역사와 특색

가가지방에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일본의 전통종이인 와시를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에도시대 이후입니다.

1592년 이후, 가나자와시의 산간지방에 위치한 후타마타에서는 공인제지장으로 가가번의 비호를 받으며, 가가호쇼 등 상질의 공용종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1784년에는 쓰루가에서 제조법을 배워 가와기타마치에서 삼지닥나무 종이(삼지닥나무 종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니시진오리의 금사, 은사의 심종이로 사용됐습니다. 현재는 금박을 치는 종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와지마시 니교에서도 옛부터 부근의 닥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가 후타마타 종이로는 현재 금박치는 종이와 공예, 표구용 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지마시의 와시는 노토니교와시라고 하며, 조릿대와 삼나무 껍질, 해초 등을 넣어 만드는 노토 유일의 창작종이입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川北町(가와키타시)・輪島市(와지마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奉書, 箔打ち紙, 和装小物, 壁紙
(상질종이 호쇼, 금박치는 종이, 일본전통옷차림 소품, 벽지)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石川和紙の会(이시카와 전통종이 와시 모임)
〒920-1102 金沢市二俣町18(가나자와시 후타마타마치 이 8) TEL (076)236-1062